

# 주말 내 복적인 백화점, 매출 급증... “코로나 없는 듯”

### 백화점업계 2일부터 정기세일 시작

### 세일 첫 주말 매출 증가율 45~70%

아직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간 이어진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과 급격히 따뜻해진 날씨가 겹치면서 쇼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부진하기만 했던 오프라인 매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봄 정기 세일에 들어간 백화점 빅3(롯데·신세계·현대) 주

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게는 45%, 많게는 70%까지 올랐다. 매출 증가율은 롯데 46%, 신세계 62.5%, 현대백화점 71.3%였다. 업계는 지난해 봄 정기 세일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이 큰 건 자연스럽지만, 그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번 봄 세일을 주도하는 건 여성 패션이다.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여성 패션 부문은 지난 1년간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봄을 맞이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롯데의 여성 패션 부문 매출은 작년보다 54%, 신세계는 70.8%, 현대는 88.1%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중에도 꺾임이 없었던 명품 매출은 이번에도 더 늘었다. 롯데는 74%, 신세계는 76.4%, 현대는 121.5%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

계자는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경우는 없었다는 게 학습된 것 같다”고 했다.

소비 수요 증가는 지난 2월부터 예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백화점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9.6%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5였다. 지난해 1월(104.8) 이후 처음 100을 넘겼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소비심리가 긍정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최이슬기자



금값, 5년만에 최대폭 하락

5일 서울 중로구 한국금거래소 중로본점에 금세공품이 진열돼 있다. 지난해 금세를 보였던 국제 금값은 올해 1분기에 9.5% 하락해 2016년 이후 최대 분기 낙폭을 기록했다.

## ‘40년 모기지’ 이르면 7월 출시... 이달 중 계획 나올 듯

### 청년·신혼부부 대상 등은 협의 진행 중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 가능성도 솔솔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빠르면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 등과 함께 협의 중인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 우선 도입 계획 등이 담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만기 30년이 최장인 기존 보증자리론 요건을 기준으로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부분들과 관련,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세부 요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하고, 확정되면 이달 안에는 발표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만기 50년 모기지와 관련한 논의도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선언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빛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날인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만약 50년이 작동될 수 있다면 더 쉽게 비용을 줄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이나 했겠느냐. 상황이 바뀌면 또 (50년 모기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정기자

## 카카오워크 이용료 80% 정부 지원... “중소 디지털 전환 장려”

###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공급 서비스로 선정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가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의 공급 서비스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가 대중화되고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면서 기업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대응을 위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1개 기업당 최대 1550만원을 전자적자원관리(ERP), 그룹웨어(메신저, 영상회의), 보안, 고객관계관리(CRM), 전환지원(데이터 이관, 환경설정, 교육 등)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지원한다.

카카오워크는 그룹웨어 부문 제공 서비스로 선정됐다. 주요 기업이 카카오워크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및 카카오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유나기자

## ‘26돌’ 광주신세계 “공상 불승인 소방관 돕는다”

### 소방관 돕는 사회적기업 119REO 행사 수익금 50% 후원



광주신세계가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소방관을 돕는데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5일 창립 26돌을 맞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을 위한 행사로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사회적 기업 119REO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인 119REO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를 활용해 일선에서 소방관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수익의 50%를 ‘공상 불승인’ 소방관에게 후원하는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이다. ‘공상 불승인’은 소방관이 암·혈액·육종암과 같은 보이지 않는 내상을 입었을 때 국가에서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9REO는 ‘화재, 재난상황 등 위험에 처하면 소방관이 우리를 구해주듯,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구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Rescue Each Other의 앞글자를 따서 서로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리며, 20일부터 5월9일까지는 지하 1층 연결동로에서 소방장비 재활용 제품 판매전으로 진행된다.

판매 제품은 소방 방화복, 소방 호스의 고유한 사용감이 느껴지는 팔찌, 필통, 카드지갑, 가방 등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동료·친지·자녀들에게 평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소방관들의 애환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후원 판매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재본부

## ‘2년 만에 제자리’...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큰 폭’ 개선

###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117’...전분기 대비 46포인트 ↑

광주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세자릿수 지수까지 올라섰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29개사를 대상으로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IS) 전망치는 전분기(71)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117’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 2019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상회한 수치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지만 백신 상용화 시작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분석했다.

BIS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식음료(145)’, ‘유리·시멘트·콘크리트(171)’, ‘철강·금속가공(127)’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부품(81→115)’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매 호조 지속과 신차 출시·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의 수출량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IT·가전(79→113)’은 집콕(집에 머무르기) 트렌드 지속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와 더불어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신제품 출시 등으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윤희기자

‘철강·금속가공(85→127)’, ‘유리·시멘트·콘크리트(33→171)’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 기동과 글로벌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반면, ‘기계·금형(95)’, ‘화학·고무·플라스틱(89)’은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원자재값 증가 등을 우려해 기준치(100) 이하를 보였지만 전분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86→150)은 유럽 등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 움직임과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됐다.

중소기업(69→114)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소비·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으로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도는 ‘더 심화됐다(89.1%)’고 응답했다.

## “등록하면 지원금 줄게”...노점상도 코로나19 지원 받아

### 오늘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무등록 점포였던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노점상이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도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사업자등록 조건을 설정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